
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 2021년 10월 21일(목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녹지정책과 도시녹화팀	담당자 • 도시녹화팀장 이상희 ☎440-3691 • 담당자 공경화 ☎440-3693		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, 시민과 ‘화기애애’ 꽃피는 인천 만들어

- 꽃 피고 생동감 넘치는 원도심 골목정원 조성 -  
 - 지역마다 특색있는 녹색 네트워크구축하도록 노력할 것 -

인천시가 침체된 분위기의 원도심을 변화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천 가능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꽃 심기를 통해 원도심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생활환경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‘화기애애 꽃 피는 인천 만들기 사업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.

‘화기애애사업’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대상지 선정부터 꽃 가꾸기 등 모든 과정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다. 원도심지역의 유휴공간 및 골목길에 다양한 꽃과 식물을 소재로 쾌적한 쉼터를 조성해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휴식과 치유·관상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시는 지난 6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7월 현장조사를 거쳐

총 4개소 지역을 2021년 하반기사업으로 선정했으며, 그 사업대상지로는 미추홀구 누리고 나누는 동네, 남동구 남촌동 남측마을, 서구 신현마을 등 더불어마을 3개소와 동구 동인천역 2030 역점프로젝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.

특히, 남동구 남촌동 남측마을은 市 계양공원사업소 지원을 받아 국화조형작을 포함해 소국을 설치, 지난 10월 2일부터 전시해오고 있으며 ‘화기애애 꽃 피는 인천만들기 사업’으로 은행나무 잎 모양의 플랜터, 벤치, 화단 설치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 꽃을 즐길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되어 마을 풍경이 많이 변화됐다.

박세철 시 녹지정책과장은 “코로나 19로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는 요즘 ‘화기애애 꽃 피는 인천만들기 사업’으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뿐 아니라 꽃 가꾸기 등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의 시작이 되는 윤활유가 될 것이다”고 말했다.

향후 시는 원도심내 더불어마을 등 사업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화개애애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마다 특색있는 녹색 네트워크구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.

<붙임> 현장사진

[붙임1] 화기애애 현황사진



화기애애사업 전경



남촌 마을 입구